

교수님과 친해지면서 공부 잘하는 법

경영학부 20학번 김○○

○ 에세이 작성 동기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학생이 교수님의께서 가르치시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반가워 하시고 기특해 하십니다. 상담 중에는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온라인 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화상 회의 서비스(MS TEAMS, ZOOM, SKYPE 등)를 이용한 교수님과의 1대1 상담이 가능해졌다.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장소 선정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아직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과의 1대1 상담을 신청하고 있지 않아 1대1 상담의 장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이 교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식을 더 잘 이해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실제 1대1 상담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썼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했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

1.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생기거나 진로, 취업, 인생 전반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2.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연락을 드린다. lms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화상 회의 서비스의 채팅창 등을 이용한다. 모르는 부분이 생겼는데 교수님 같은 전문가께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린다. 언젠가 편하시냐고 여쭙보고 시간대를 정한다.
 - 2-1.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보지 않으시거나 거절하시는 경우:
 - a. 용기를 내어 시도해 봤다는 사실에 의의를 둔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실패 후 빠르게 일어설 수 있고 결국 성공한다.
 - b. 꾸준히 질문을 담은 메일을 보내 보자. 끈기에 감탄해서 만나 주시거나 답변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
3. 상담 전: 교수님께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교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교수님께서 답변 준비를 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4. 상담 중: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교수님 설명을 듣다가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면 한다.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1대1 수업을 계속한다.
5. 상담 후: 교수님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교수님 같은 전문가가 되고 싶다 등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다. 교수님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영어, 경제, 글쓰기, 수학 교수님께 1대1 비대면 상담을 요청했다)

1. 용기를 내어 다양한 교수님들께 연락드렸을 때: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요령을 익힐 수 있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고, 실행력이 늘었다.
2. 몇몇 교수님들께서는 연락을 보지 않으셨다: 연락을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과목 교수님들께 상담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향상됐다.
3. 상담 전 질문 리스트를 보낼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능력이 향상됐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께서 상담 때 편하실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고 질문 리스트를 보내면 교수님께서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리스트를 보내 드렸다.
4. 상담 중: 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스케줄 관리 능력을 길렀다. 회의에 늦지 않고 참석해 나갔고, 이를 통해 시간 관리를 통해 신용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께서는 상담을 신청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상담을 신청해 줘서 고맙다며 적극성을 칭찬해 주셨다.
5. 상담 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교수님께서도 언제든지 질문해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등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다. 감사와 격려를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우리 주변에는 숨겨져 있는 기회들이 많다.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 많은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자신이 질문을 하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 주실 것 같다고 예상되는 교수님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분명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그런 좋은 교수님들과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나는 영어회화, 글쓰기 교수님과 1대1대1,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가 방식, 현재 내 점수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현재 내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영어회화 교수님께 즉석에서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봤는데, 교수님께서 그럴 경우 “Just give me a second to think about that”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답변한 뒤 여유를 가지고 답변하면 된다는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했다.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기말고사 말하기 시험 때 활용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평소 수업 때 시간적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1대1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마음껏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방법을 추천한다.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다!